“자연은 그대로가 완성이기에…”

정곡 스님의 산사에세이 통방산 오두막 소식

날사랑하여요
정곡 스님 지음
종이거울 펴냄
1만6000원

한 청년이 있었다. 청년은 율브리너를 동경해 삭발을 하고 다녔다.

어느 날 그는 마곡사를 찾았다. 그곳에서 만난 스님이 물었다.

“너는 왜 머리를 깎았느냐?”

“작해 보일까 싶어서 깎았습니다.”

“참 착함이 무엇이냐?”

청년은 말문이 막혔다. 짧은 순간이지만 생각해보니 착하다는 것은 상대적이었다. 이곳에서는 착함이 저곳에서는 악함이 될 수 있었다. 머뭇거리던 청년이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지 않느냐? 잠깐만 하다가도 된다.”

청년은 스님의 말에 3년만 공부하겠다고 생각해 출가했다. 그리고 30년이 넘게 흘렀다.

경기 양평의 통방산 정곡사의 정곡 스님은 수좌이다. 청년은 30여년간 ‘이뭣꼬’ 화두를 들고 쉼 없는 정진을 해왔다. 스님이 펴낸 통방산 오두막소식 〈날사랑하여요〉에는 선악을 초월해 대자연과 우주를 품은 글 · 사진 등 참 선함을 일깨워주는 메시지들이 가득하다.

책의 글들은 저자가 2005~2010년까지 홈페이지 jeonggok.org에 통방산주라는 이름으로 올렸던 것들이다.

저자는 1979년 천장암에서 경허 스님의 참선곡을 보고 또 한번 발심했다.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구절에 마음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다. 그 길로 제방선원에서 안거했다.

저자는 “조금이라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헛것과

사계절 그린 글 · 사진 잔잔한 감동
‘마음 어떻게 생겼나’ 30여년 참구
4월 22일 통방산서 출판기념회

환청이 들렸다. 참선 수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차리는 것’이다. 팔만대장경도 한 구절로 말하면 ‘정신차려’라는 메시지이다”라고 말했다.

저자는 ‘이뭣꼬’ 화두를 들고 제방의 선지식을 두루 만났다. 그러다 법경 법사를 만나 〈무문관〉 〈벽암록〉의 공안 점검을 끝냈다.

저자의 선기(禪機)는 비유와 설명에서 돋보인다. 그 한 예가 떡과 떡국이야기이다. 한해가 시작하는 설에 “떡국 드셨습니까?”라며 먹는 이유가 다 따로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떡은 화합지물(和合之物)이란다.

“떡이 한 덩어리가 되려면 곡식의 껍질을 벗기고 빻아서 물과 섞어 반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덩이가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아무리 좋아도 주변과 화합되지 못하면 큰일을 못합니다.”

‘나’라는 알갱이가 모두 부숴져 온전히 나를 버리고 하나가 돼야한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2003년부터 통방산 자락 정곡사에서 머물고 있다. 통방산(通方山)은 세계만방으로 통하는 곳이고, 통방산의 절경 가운데 하나인 벽계구곡(碧溪九曲)은 황벽 선사와 인연이 깊은 곳일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저자가 정곡(正谷)이라 아호를 정한 것도 산의 기상과 골짜기의 포근함을 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저자가 인하대에서 법문할 때였다. 팔정도에 관한 법문을 듣던 한 학생이 “바른 것(正)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저자가 답했다. “마음을 한마음으로 만들어 쉬는 것입니다.”

저자는 “정(正)을 파자해보면 하나[一]+그치다[(止]이다. 이것에 골짜기는 모든 것을 품는다는 생각에 아호를 정곡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저자는 통방산에 머물며 좌선하는 시간 외에는 산곳곳을 포행했다. 그곳의 모습을 담았고, 그 모습을 보고 떠오른 단상을 조심스레 글로 적었다. 어느 날, 그것들이 사이버공간에 소개됐다. 저자는 무심코 올린 글에 사람들은 삶의 위안과 희망을 느끼는 모습을 보았다.

“매일 아침 내 글 · 사진을 보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이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자는 “자연을 옮기고 노래한 글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자연은 그대로가 완성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이 또한 하화중생(下化衆生)의 방편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저자가 책 제목을 〈날 사랑하여요〉라고 이름붙인 것도 자살이 흔해진 우리 사회에서 저마다 조금만 더 자신을 사랑하자는 안타까움에서였다.

책은 모두 다섯 묶음으로 나눠졌다. 그 묶음은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과 사계의 변화를 따른 것들이다.

책은 ‘날 바라보기’로 시작해 통방산의 사계를 전하고 있다. 저자는 욕심으로 똘똘 뭉친 문명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죽비를 내리친다. 솜털 같은, 조곤조곤한 말 죽비는 가랑비처럼 보는 이의 마음을 감로수로 적신다. 저자는 책을 통해 자연에게 마음 놓고 받을 것을 강조한다.

책을 펼치면 통방산 대자연을 흠모하는 저자를 만날 수 있다. 저자를 통해 어느새 통방산을 뛰어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한편, 저자의 출판기념회 및 통방산 야생화축제가 4월 22일 정곡사에서 열린다. 행사에서는 ‘정신차려’ ‘오늘오늘오늘’ ‘알아차림’ 등 저자의 글 다섯 편이 서수일 불교음악 작곡가에 의해 노래로 선보일 예정이다.

글=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종립학교서 만든 교과서

불교적 관점에서 편찬된 최초의 중 · 고교 철학 교과서가 출간됐다.

불교교육연합회(회장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최근 중 · 고등학교용 〈생활과 철학〉 교과서를 발간했다.

책은 동국대 불교학과 김용표 교수(불교교육연합회 수석부회장)를 교재편찬위원장을, 박영동 동국대부속여고 교법사가 교과서개발팀장을 맡아 현직 종립학교 교법사 8명(박영동 김홍섭 양동효 권진영 김형중 유동호 이욱태 이학주)이 집필에 참여했다.

책은 이들이 2009년부터 2년 여에 걸쳐 작업한 결과물이다. 책은 최유진 교수(경남대), 김종욱 교수(동국대) 등 불교학 · 철학 교수들의 감수를 거쳐 1월 27일 서울시 교육감 인정도서로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책은 기존 교과서가 서양철학과 신학에 바탕을 둔 것과 달리 동서양 철학 사상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책은 중 · 고등 교재별로 각각 8개의 대단원과 32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돼 있다. 매 단원마다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생각열기 ▷생각넓히기 ▷심화자료실 ▷중요한 철학용어 해설 등 동서양 철학자를 소개하고 있다.

생활 속의 철학, 철학 논술교실 코너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글을 읽고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편집했다. 또, 대입 논술에 대비해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재편찬위원장 김용표 교수는 “책은 불교적 관점에서 편찬된 최초의 중 · 고교 철학교과서이면서 새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종립학교 최초의 철학교과서”라며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종립학교의 효율적인 종교교육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논술교육자료로 널리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책은 3월부터 전국 학교들이 교양선택 과목의 교과서로 활용할 수 있으며, 대형서점 등을 통해 일반인의 구입도 가능하다.

생활과 철학(중 · 고교편) | 불교교육연합회 교재편찬위원회 | 조계종출판사 | 각5500원

“경전과 헌법 비슷해”

법학자가 푼 반야심경

신보성 박사(前 수원대 교수)는 헌법학자이다. 그가 〈반야심경〉을 풀이 한 책을 펴내 눈길을 끈다.

책 〈반야심경과 헌법〉의 머리에서 저자는 “이 책은 정의와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반야심경을 풀어본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저자는 “사업을 하며 정가를 기웃거리는 등 욕심에 눈이 멀어 소질도 능력도 없는 일에 인생의 소중한 한때를 낭비했다”고 술회한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은 뇌졸증 때문이었다. 뇌졸중으로 죽음의 문턱을 들락거리면서 그는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다.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불편한 다리를 끌고 사찰을 찾은 그는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반야심경〉을 독송했습니다. 가슴에 쌓인 번뇌의 덩어리가 녹아나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그것을 인연으로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게 됐다. 사찰의 불교대학에서 불교문학을 강의하게 됐다. 문학과 불교경전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자연스레 〈반야심경〉과 직 · 간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세속의 법률이야기를 언급했다.

책은 저자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것들을 수필 형식을 빌어 정리한 것들이다.

〈반야심경〉의 공(空)은 실체가 없다. 물리학자에게는 물리학으로 설명이 되고, 법학자에게는 법학으로 이해된다는 것이 저자의 말이다.

저자는 대승불교에서 이상으로 추구하는 보살적 인간상은 헌법의 자주적 인간상과 유사하다고 말한다. 또, 헌법은 중도와 일맥상통 하는 면이 있다고 말한다.

책은 합법적으로 불법을 설명하고 있다.

반야심경과 헌법 | 신보성 글 | 여행마인드 | 1만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5~2/21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2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3	방황해도 괜찮아	법륜	지식채널
4	마음수업	이광정	휴
5	무문관 참구	장휘옥,김사업	민족사
6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뜰
7	깨달음	법륜	정토
8	법정 나를 물들이다	변택주	불광출판사
9	젊은 날의 깨달음	혜민	클리어마인드
10	불교와 과학 진리를 논하다	사이토 나루야 외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9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19권 출간!
홍화선사, 관계선사, 설봉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부처님 최후의 법문
최상승의 가르침, 법화경
초판 매진 개정 신판!
묘법연화경
‘그대가 본래 부처’ 임을 설한 최고의 불경
구마라집 한역
본각선교원 편역
신국판 | 흑백 | 680쪽
2월 20일 개정신판 발행
26,5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사람이 ‘본래 부처’ 임을 설한 궁극의 가르침
일승(一乘)의 부처지혜 일깨운 불경의 왕!
본각선교원 · 정토사 불교대학 교재 채택!
한자(漢字)마다 일일이 한글 음을 달고, 문장마다 토(吐)를 붙이고 번역까지 해서, 독송 및 간경(看經) 교재로도 적합해 스님과 불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사주학의 새 지평을 연
사주대학 상,하
석삼정 스님은 고대 근대 명리 사주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수세기만에 명리학 역사상 처음으로 100% 적중하는 명리학의 핵심인 체와 의식이분법의 원리를 정립하여 명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명리학계의 찬사와 돌풍을 일으킨 책이다.
체와 의식 이분법으로 전생업보론, 성격독심술, 원근법 등을 사주와 이치를 소상히 기술하여 초보도 독학이 가능하다.
판매처 : 인터넷 서점 yes24, 인터파크, 교보문고 등 전국유명서점
인터넷 서점은 10% 할인 됨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큰절할 때, 땀 흡수를 위해 방석위에 덮어 놓는
참회진언 특허 성불타올
참회진언 대타올 및 가방
땀 흡수 안되는 마타올은 불편...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큰절할때 참회진언 타올
얼굴과 손을 닦을 때 세수면진언 타올
※ 타올에 인쇄 합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타올도매/인터넷 웹하드(데이콤, www.webhard.co.kr)에서 보세요 (아이디 hce4936 비밀번호 6584).